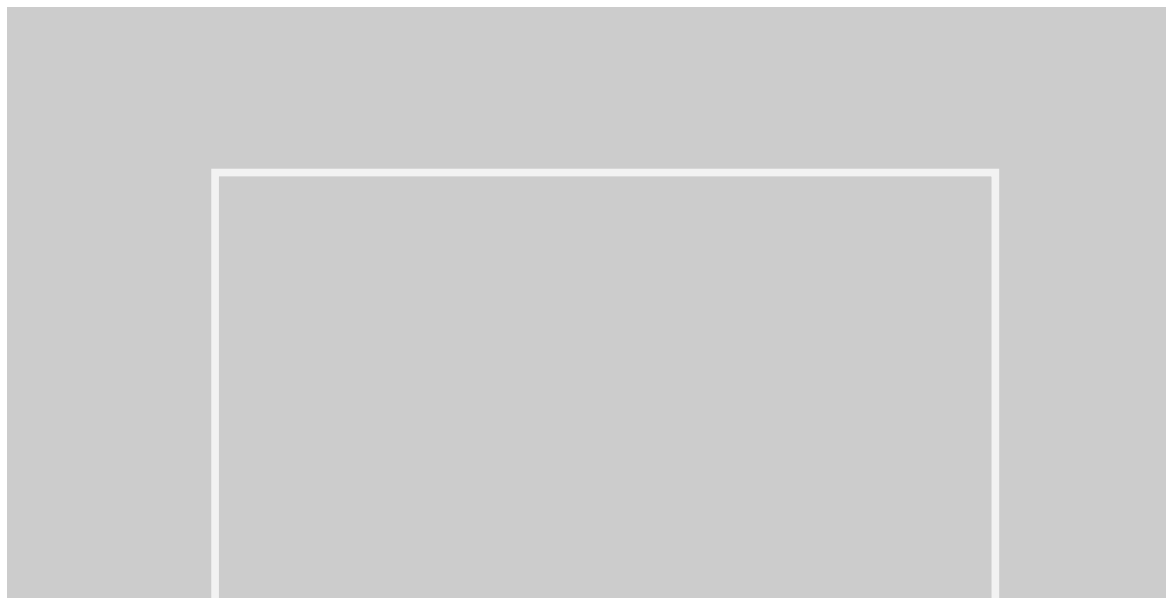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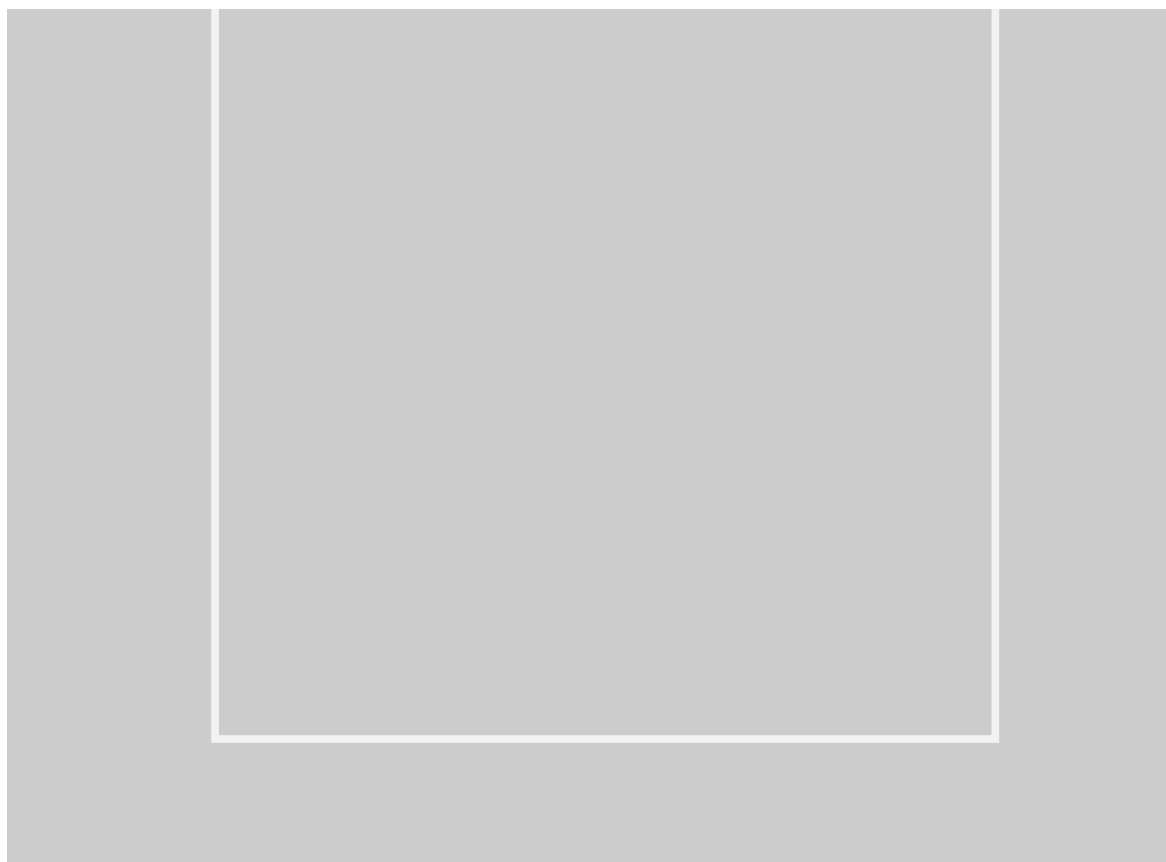
2021. 2.



중소벤처기업부



요약



2021년 중소기업부 업무계획 주요내용 (요약본)

1. 4년 추진성과와 평가

- ◇ '17년 중기부 출범 후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독립된 정책영역 구축
- ◇ '20년에는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대한민국」 비전을 설정
→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경제 주역화 추진

①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경제주역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 견인

- ① (역대 최대 창업 및 유니콘 증가) '20년 역대 최대 법인창업을 달성하였고, 유니콘 기업이 '17년 3개에서 '20년 13개로 대폭 증가
* 신설법인(만개) : ('17) 9.8 → ('18) 10.2 → ('19) 10.9 → ('20) 12.3
- ② (비대면·디지털 분야 선도)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신설(20. 1.3조원),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20.11) 등 육성체계 마련
- ③ (벤처스타트업으로 고용의 축 이동) '20년 벤처기업은 코로나 위기였던 작년 한해 동안 약 5.3만명 일자리를 창출
* 벤처기업 고용 : '19년 12월말 67.1만명 → '20년 12월말 72.4만명(+5.3만명, +7.9%)
- ④ (주식시장 제2벤처 붐 및 역대 최대 벤처투자) 벤처·유니콘기업이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 주역으로 부상하고, 역대 최대 벤처투자 달성(20. 4.3조원)
* (코스닥 : 상위 20위 내 벤처기업 수) ('01) 6개 → ('20) 13개

② '스마트 대한민국' 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 ① (디지털 제조혁신) '20년까지 스마트공장 약 2만개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 등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추진
- ② (혁신중소벤처기업이 수출 버팀목) 전체 수출 중 중소기업 수출 비중 증가('17. 18% → '20 19.7%), 온라인 수출 106% 급증('20, 전년비) 등
* '브랜드K' 제품 133개 지정 → 브랜드K 선정기업의 '20년 수출액이 전년비 36.6% 증가

③ 소상공인 디지털화 및 위기극복에 총력 대응

- ① (소상공인 디지털화) 스마트상점·공방·디지털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전환 기반 구축('20.9,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
* (스마트슈퍼 1호점) 일평균 매출 32.6%, 심야 매출(21시~07시) 53.1% 증가
- ② (소상공인 위기극복 대응) 범부처 협업을 통해 새희망자금 개시 3일만에 184만명을 지원하고, 긴급대출 절차 간소화(4주 → 3일) 등 적극행정 구현
- ③ (소비촉진 통한 자생력 제고) 4조원까지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동행세일'('20.6월), '크리스마스마켓'('19, '20.12월) 등 추진

4 **자상한기업 등 대·중소기업 간 새로운 상생협력의 길 마련**

- ① (자상한 기업)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발굴(~'20. 25개) → 중소·벤처·소상공인에 대한 투자·금융·판로·디지털화 등 122조원 지원 약속
- ② (상생협력 기반 확충) '상생조정위원회' 구성·운영('19.6 출범, 20건 조정), 상생결제 500조원 돌파('15~'20 누적),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19.1) 등

5 **새로운 혁신생태계 - 규제자유특구, 소부장·BIG3 육성 박차**

- ① (규제자유특구) 24개 특구를 지정하여 132개 규제특례를 허용 → 투자유치(6,757억원), 일자리(1,255개), 기업이전(162개)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실증이 진전됨에 따라 핵심부품 국산화, 특허 출원 등으로 매출 및 수출기회 확대 등
- ②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선도하는 '소부장 강소기업 100', '소부장 스타트업 100', '소부장 상생모델' 선정·집중 지원
* 선정기업들이 창출한 성과를 사회에 환원키로 선언('20.6, "함께성장 마중물 선언식")
- ③ (BIG3) 셀트리온 등 국내 혁신기업 및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협업,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유망기업 250' 육성

◇ (향후 개선사항) 현장 중심 적극행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벤처·스타트업이 주역인 선도형경제 구현, 전통중소기업 혁신 등을 이루고
○ 국민과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체감하는 성과창출 본격화 추진

2. 업무 추진방향 및 2021년 핵심 추진과제



(1)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 회복 추진

①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안정화시스템 확충

- 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소상공인의 매출급감 등 긴급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지원금 4.1조원 신속 지급 **협업**
 - ② (임차료 특별용자)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저금리(1.9%) 용자 1조원, 집합제한 업종 2~3%대 용자 3조원 등 총 4조원 공급
 - ③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자발적 임대료 인하 세제지원 강화(50→70%), 정책금융 용자* 지원, 민간 협단체와 공동 홍보·캠페인 전개 **협업**
- * (현행) 부동산업은 지원대상 제외 → (개선) 착한임대인은 한시적으로 포함

②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가속화를 위한 피해 지원 적극 검토 **협업**

-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적극 검토
- *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부의 불가피한 방역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피해지원 법제화 추진('21.상)

③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 지원 **뉴딜**

- ①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폐업·재기단계 세무·법률 자문('21. 4천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통한 폐업부담 경감
 - ② (취업·재창업 지원)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재창업자 사업화자금도 신설('21. 1,200명, 최대 1천만원)
- * 예시) LH와 협업하여 소상공인이 재창업시 희망상가에 1년간 무보증금 입점 지원 등

④ 소상공인의 일터(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상권회복 프로젝트 추진

- ① (소상공인·전통시장 스마트화)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디지털기술 등 스마트기술을 도입, 경영·서비스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뉴딜**

구분	주요 내용
스마트 상점	·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상점을 본격 확산('21. 2만개), 최신 스마트기술 전시 등 모델샵도 추가 구축('21. 1곳)
스마트 슈퍼	· '20년 성공적 시범도입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사후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체계 확립 및 확산('21. 800개)
디지털 전통시장	· 대면 판매 중심인 전통시장에 온라인 배송 서비스 도입, 무선결제, VR 지도 구축 등 지원('21. 100곳)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특화거리, 온라인 판매, 복합 체험판매 라운지를 패키지로 지원('21년 1곳, '22년 2곳 선정)

- ② (내수 촉진 기반 확충)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2.5→3조원, 본예산 기준), 「지역상권법」 제정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
- ③ (소비촉진) 동행세일, 크리스마스마켓에 문화를 접목하여 대한민국 대표 소비축제로 확장 **협업**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 별도계획 수립
- ④ (구독경제 접목) 유망 소상공인 상품을 소비자가 미리 결제 후 정기 배송하는 (가칭) '소상공인 구독경제 생태계 구축방안' 마련('21.3월)

(2)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

1 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 등 선도형경제 창업불 활성화

- ① (디지털·비대면 경제)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벤처 4대강국 구현 **뉴딜** **협업**
 - * (K-비대면) 비대면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25년까지 1,000개) → 성장 및 글로벌화 지원 (K-유니콘) '아기유니콘 → 예비유니콘 → 유니콘'으로의 성장 생태계 조성 ('21.1~)
- ② (그린 경제)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22, 100개),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 등을 통해 그린경제를 주도하는 벤처·스타트업 육성 **뉴딜** **협업**
- ③ (혁신 창업 인프라 등 확충) BIG3 및 D.N.A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제조창업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21.상) 등 인프라 구축
- ④ (청년창업 활성화 등 기반 확충)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등 구축 **협업**
 - * 창업자금 + 지원프로그램 + 창업인프라 등 분야별 청년창업 활성화 추진체계 마련 등

2 적극적 마중물 공급 등을 통한 벤처투자분 촉진

- ① (스마트대한민국펀드) '20년 1.3조원에 이어 '21년 1조원을 추가 조성하여,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기업에 집중 투자('25년까지 총 6조원 조성 목표)
 - * ('21년 조성방향)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등 중심
- ② (벤처투자 환경 고도화) 실리콘밸리식 금융(투자조건부 용자) 도입을 추진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 추진
 - * 벤처투자 표준 계약서 마련·보급 등 피투자기업 보호를 위해 감독 기능을 강화('21.상)

③ '브랜드K' 등을 통한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의 수출분 도모

- ① (브랜드K)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K'의 인지도 제고, 판로 지원 등을 통해 국내·외 입지(브랜드 파워) 강화 **협업**
- ② (비대면·온라인 등) K-방역제품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비대면·온라인 수출을 촉진하고, 국적해운선사 선박에 수출 물량 우선 배정 등 추진

③ 디지털화, 저탄소화, 지역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기반 구축

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중소제조업 디지털화 등 스마트제조혁신

- ① (디지털화 촉진 인프라) 인공지능 제조플랫폼과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제조혁신법 제정 등 기반 확충 **뉴딜**
- ② (스마트공장 선도모델) 중소기업 제조혁신의 선도모델로서 5G+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1,000개, K-스마트등대공장 100개 구축(~25) **뉴딜**
* K-스마트등대공장 : 5G+인공지능 융합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선도형 공장

② 고품질 제조공장의 저탄소 공정혁신 및 신사업전환혁신 기반 확충 **탄소**

- ① (저탄소 공정혁신) 탈탄소경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린뉴딜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특별법을 마련하고, 공정혁신 금융지원 강화(0.6조원 목표)
- ② (사업전환·재도약) 중소기업의 **신사업** 개척을 지원하고, 부실 단계 진입 전에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유동성 공급·컨설팅 등 경영안정화 지원)

③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 신기술·신사업 창출 촉진

- ① (특구제도 안착화) 1·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기간 종료*에 따라 성과 창출을 위해 법령정비, 임시허가 전환 등 후속조치 추진
* 1·2차 특구 39개 사업의 실증특례가 '21년 하반기(8월, 12월)에 각각 종료
- ② (신규지정) 디지털·그린 등 국가정책과 연계(Top-down)한 방식을 병행하여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21년 2회) **뉴딜** **탄소**
* 저탄소·친환경특구를 20개로 확대(~25)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 등 선도적 역할 수행

④ 지역주력산업·지역선도기업 육성 등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화

- ①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시·도 주도로 지역주력산업 분야 유망기업 100개사 선정('21~'22) → R&D, 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
- ② (혁신 인프라 확충) 지역소재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가치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육성·발전 전략 마련('21.3월)

5 현장수요와 뉴노멀에 대응한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

- ① (현장수요·뉴노멀 진출 지원) B2B, B2G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라 온라인몰 통합관리 지원을 고도화
- ② (공공구매제도 혁신)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를 본격 시행(21.1월)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개편(21.2분기) 등 공공구매제도 혁신

4) '연대와 협력' 으로 상생경제 확산

1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 등 상생협력 기반 확충 협업

- ①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 자발적인 이익공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적 모델을 발굴·확산 추진
- ② (사업영역 보호)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 제고
- ③ (상생협력 기반 확충) 상생협력기금 신규 1조원 조성(21~25년), 동반성장 평가체계 개선 등 상생협력 기반 강화 협업

2 혁신 분야 자상한기업 발굴 및 소재·부품·장비 상생협력 등 강화 협업

- ① (자상한기업) 비대면·디지털 등 한국판뉴딜 및 탄소중립 분야와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발굴 → '자상한 기업' 협약 체결
- ② (소부장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간 분업적 상생모델 확대를 위해 R&D 지원규모 확대 등을 추진하고, 친환경 분야 소부장 육성*

*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통해 친환경 관련 소부장 국산화 상생모델 발굴 및 지원(21.상)

3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등을 통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촉진

- ① (플랫폼 고도화) "민간 주도·협력형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시스템"으로 확장을 위한 5대 대-스타 플랫폼 핵심체계* 구축(21.상)
- * 5대 핵심체계(안): ①혁신경제, ②프로토콜경제, ③서민경제, ④공정·상생경제, ⑤조달경제
- ② (플랫폼 인프라 확충) 플랫폼의 체계적·지속적 운영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21.상), 모델 다양화 및 상시 문제해결시스템 구축

4 플랫폼과 동행하는 프로토콜(Protocol)경제로 공정한 혁신생태계 구현

- 프로토콜 경제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4대 선도모델 정립 및 창업·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프로토콜경제 발전전략' 마련(21.상)

* 3대 기본원칙 : 정보 분산(탈중앙, 분권형) + 증개비용 최소화 + 합의된 규칙

5 주요 노동이슈 중소기업 현장안착 맞춤형 지원 협업

- ① (주52시간제)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약체' 구성(관계부처 등 협업)
→ 현장 애로에 대한 1:1 맞춤형 정책 연계
- ② (안전한 기업현장 조성)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산업재해 예방 교육·컨설팅 강화 등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5) '현장·소통 중심' 적극행정 구현

- ① (현장·소통 중심의 성과점검) 중소·벤처·소상공인 현장과의 주기적 소통을 통해 지원정책의 성과, 현장 안착여부 등 점검·확인
- ② (국민추천제 활성화) 당사자가 지원사업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과 함께, 일반 국민이 지원대상 추천 병행(적용 사업 : ('20) 10개 → ('21) 15개)
- ③ (캐주얼데이 운영) 현장밀착형 정책 구현과 창의적 업무 수행을 위해 매주 금요일을 「캐주얼데이(Casual Day)」로 지정·운영('21.3월)
* 중기부 직원들이 월 2회 내외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 청취

3.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뀔니다

- ① **소상공인의 경영이 회복되고, 스마트상점·전통시장이 나타납니다**
 - 소상공인의 경영이 회복·안정되고, '21년 스마트상점 2만개(~'25. 10만개), 디지털전통시장 100개(~'25. 500개)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해 수익성 등 제고
- ② **글로벌 혁신기업이 나타나고, 대한민국이 세계 벤처4대강국 진입으로 디지털경제를 선도합니다**
 - 글로벌 비대면 혁신벤처 100개(~'25), 비대면 예비유니콘 700개(~'25) 등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기업 육성
- ③ **지역에서 새로운 혁신이 만들어지고 전통중소기업이 성장합니다**
 - '21년 스마트공장 약 2.4만개 보급(누적, ~'22. 3만개),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역동성과 혁신성 제고

“우리의 일상을 바꾼 비대면 혁신 벤처·스타트업”

- 서울 원룸에서 혼자사는 1인 가구 김씨는 얼마전까지만해도 빨래하는 것이 항상 고민이었다. 퇴근 후 늦은 시간 세탁기를 돌리는 것도 고민, 드라이 크리닝을 해야하는 옷들을 제때 세탁 못하는 것도 고민이었다.
- 그러다 며칠 전, 비대면 모바일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스타트업 R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모든 고민이 없어졌다. 이 비대면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스마트폰 터치 몇 번 그리고 문밖에 빨래를 놔두기만 하면, 깨끗하게 세탁된 옷이 다시 집 앞으로 배송되기 때문이다.
- '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아기유니콘200 사업에 선정된 비대면 혁신 스타트업 R사는 '19.3월 서비스 런칭 이후 235억원 투자유치, 1년 6개월만에 1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21년 중소벤처기업부는 「K-비대면 글로벌 혁신 벤처 100 프로젝트」를 통해 비대면 혁신 벤처를 집중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으로 K-방역 세계화에 도전하다”

- A사는 2020년2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발 빠르게 진단키트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해외의 진단키트 주문 폭주에도 불구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와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생산방식으로는 물량을 맞추는 데 턱없이 부족했다.
- 이에, 긴급히 스마트공장 도입을 추진하였고, 100% 국산 기술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대량생산체제를 확보하여 생산성 증가율 1,233%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올렸으며, 현재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 '19년 대비 10배 이상 매출을 올렸다.

* (도입효과) 생산성 증가율 1,233%(주당 3천키트→4만키트), 라벨부착시간 감소율 80%(20hr→4hr), 검사시간 감소율 86%, 재고관리 정확도 증가율 25%p, 물류동선 감소율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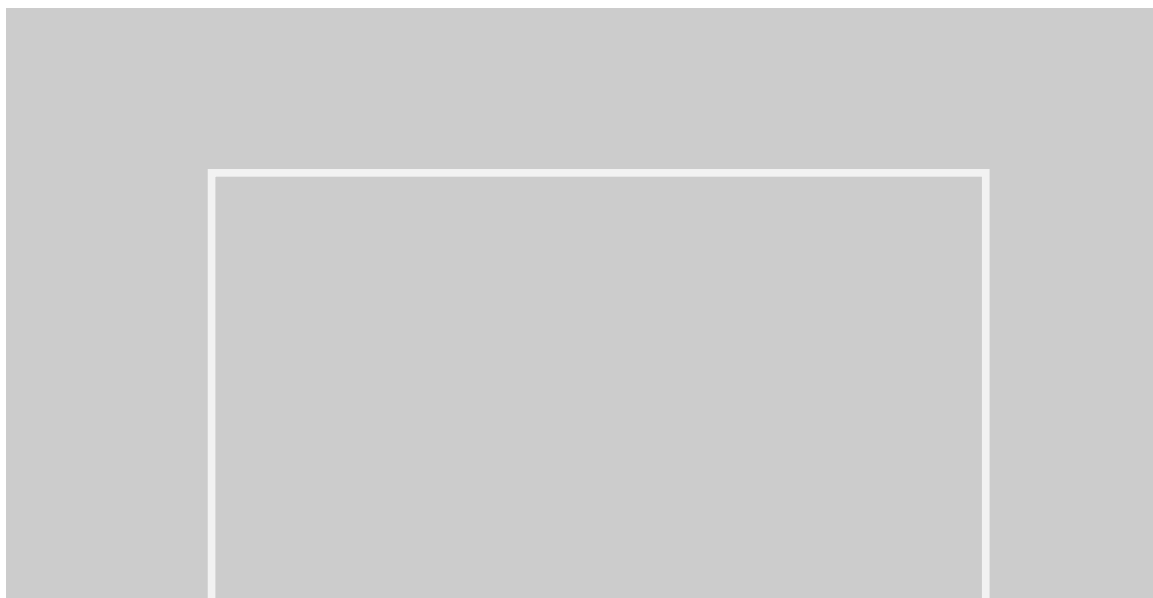
-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의 질적 고도화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병행하여, '22년까지 누적 3만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다.

“3시간 만에 입금, 속도에 놀라고 또 감동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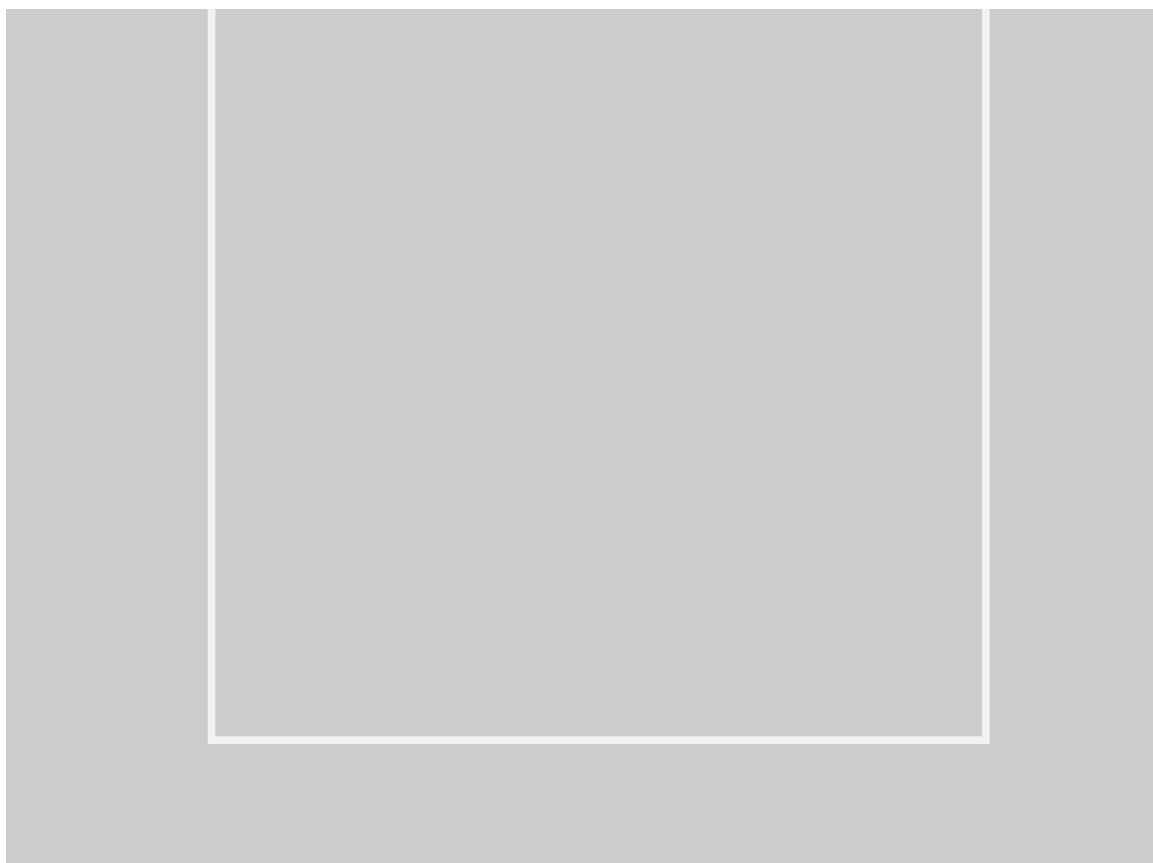
- 경기도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B원장은 수도권 내 다른 학원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받았다. 매출이 2020년 10월에 50%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12월부터는 아예 수입이 없어졌고, 월 110만원씩 나가는 임차료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했다.
-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B원장은 정부가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청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을 한 후 크게 놀랐다. 버팀목자금을 신청한지 불과 3시간 만에 30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 B원장은 “최근 제대로 학원을 운영할 수 없어서 우울했는데, 버팀목자금 덕분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정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배려하여 신속하게 지원한 데 대해 고마운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스마트슈퍼로 바꾸니, 매일 아침 보너스 받는 기분입니다”

- 아내와 함께 둘이서 조그만 동네슈퍼를 운영하는 60대 소상공인 최씨는 스마트슈퍼*로 전환한 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추가로 보너스를 받는 느낌이다.
* (스마트슈퍼) 무인 출입장비, 무인 계산대, 보안시스템 등 스마트기술·장비를 도입하여 낮에는 유인,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 무인점포
- 주인이 퇴근하고 없는 심야시간에는 신용카드로 신분 확인을 거친 손님이 가게로 들어와서 원하는 물건을 고른 후 스스로 계산대에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소비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20~30대 손님들이 많아져 이용고객층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었다.
- 이 동네 슈퍼는 스마트슈퍼로 전환한 뒤 하루 평균 매출이 32.6%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년 시범 운영한 5개 스마트슈퍼의 성과를 바탕으로, ‘21년부터 연간 800개 동네슈퍼의 스마트슈퍼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PH **PH**





목 차



I. 4년 추진성과와 평가	1
II. 2021년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6
III.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추진과제	8
1.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 회복	9
2.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경제의 주역으로 육성	13
3. 디지털화, 저탄소화, 지역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기반 구축	16
4.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경제 확산	20
5. '현장·소통 중심' 적극행정 구현	23
IV.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4
【별첨 1】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25
【별첨 2】 4년간 성과 및 2021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	28

I. 4년 추진성과와 평가

- ◇ 2017.7월 중기부 출범 후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촉진, 소상공인·자영업의 독립된 정책영역화 등을 위한 토대를 마련(~'19년)
- ◇ 2020년에는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대한민국」 비전을 설정 →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경제 주역화 추진

1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경제주역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 견인

① (유니콘 등 혁신기업 육성) 혁신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혁신벤처의 성장을 위해 「K-유니콘 프로젝트」(20.4) 추진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 Google·Microsoft 등 글로벌기업과 협업하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0" 추진 등

⇒ '20년 역대 최대 법인창업을 달성하였고, 유니콘 기업이 '17년 3개에서 '20년 13개로 대폭 증가(미국 CB insights 등재 기준 11개, 세계 6위)



* (참고) 유니콘기업 요건을 충족하나 아직 美 CB insights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 등 포함 시 총 13개

② (비대면·디지털 분야 선도)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신설(20. 1.3조원),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20.11) 등 국내 비대면·디지털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육성체계 마련

사례

· 비대면 혁신벤처(런드리고) : 국내 최초의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를 오픈, '19.3월 서비스 런칭 이후 235억원 투자유치, 1년 6개월만에 100명 신규 고용 창출(20. 아기유니콘200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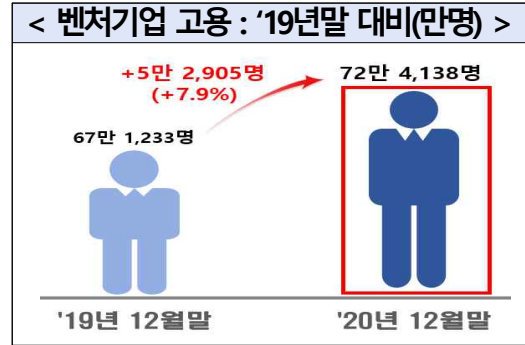
③ (벤처투자 등 역대 최대) 모태펀드 예산을 확대 편성('17. 0.97조원 → '20. 1.3조원)하고,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3대 법률 정비

* ① 벤처투자법 제정(20.8 시행), ② 일반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20.12 공정거래법 개정), ③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추진(20.12~, 벤처기업법 개정)

⇒ '20년 역대 최대 규모의 벤처투자 4.3조원 달성 및 벤처펀드 신규결성도 6.6조원(전년비 2.3조원 증가)으로 최초 6조원 돌파

④ (벤처스타트업으로 고용의 축 이동) '20년 벤처기업은 코로나 위기에도 작년 한해 동안 약 5.3만명 일자리를 창출

* 벤처기업 고용 : '19년 12월말 67.1만명 → '20년 12월말 72.4만명(+5.3만명,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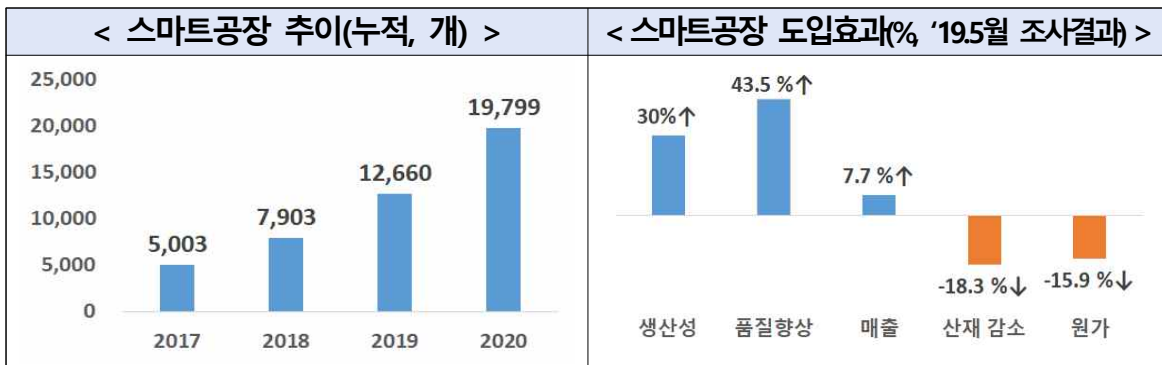
⑤ (주식시장 제2벤처 붐) 벤처·유니콘기업이 코스피 300, 코스닥 1000 주역으로 부상

구 분	주요 성과
코스닥	상위 20위 내 벤처기업 수 : ('01) 6개 → ('20) 13개(코스닥 전체 시총(약 359조원)의 약 12.4% 차지)
코스피	상위 20위 내 벤처기업 수 : (~'10) 없음 → ('20) 셀트리온, NAVER 등 벤처기업 출신 4개사가 20위내 자리매김

② '스마트 대한민국' 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① (디지털 제조혁신) '20년까지 스마트공장 약 2만개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 등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추진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전략('18.12),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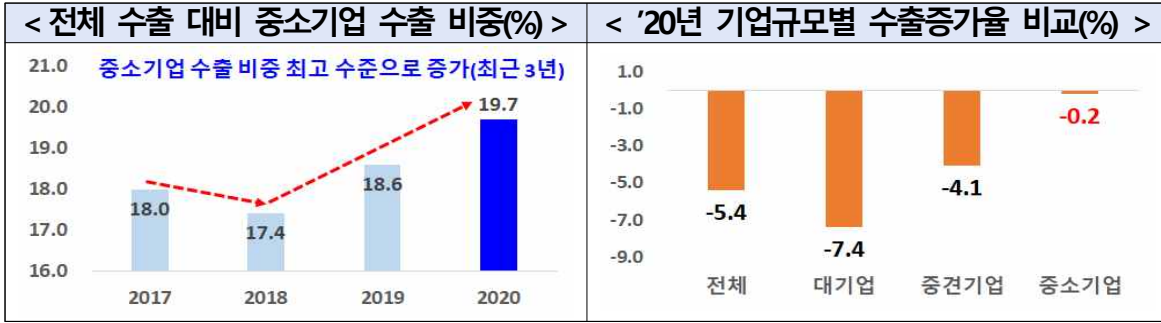
② (혁신중소벤처기업이 수출 버팀목)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K' 제품을 133개 지정하고, 화상상담회 등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수출지원체계 구축



⇒ 전체 수출 대비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17. 18% → '20. 19.7%)하고, 브랜드K 수출 증가, 온라인 수출 106% 급증 등 중소기업 수출이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

* 브랜드K 선정기업의 '20년 수출액이 전년비 47.7%(1기 선정), 36.6%(2기 선정) 증가

**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증감률(% , 전년비) : ('19) 46.0 → ('20) 106.3



③ (중소기업 R&D 2조원 시대) 중소기업 전용 R&D를 확대하고, 투자형·후불형 R&D 도입('20.7월)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 * 전 부처의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 ('17) 1.1조원 → ('21년 목표) 2.1조원
- * 중기부 R&D 규모(억원) : ('17)11,172 → ('18)10,917 → ('19)10,744 → ('20)14,885 → ('21) 17,229

3 소상공인 디지털화 및 위기극복에 총력 대응

① (소상공인 디지털화) 스마트상점·공방·디지털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전환 기반 구축('20.9,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

- *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결제 도입('19.1월) → '20.12월말 기준, 간편결제 결제액 1.2조원 및 가맹점수 73만개 달성 등 활성화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부부가 운영하는 60㎡의 소형 동네슈퍼로, 영업시간은 09시~24시로 하루 15시간 운영 · (디지털전환) 스마트슈퍼 전환('20.9.28) 후 일평균 매출 32.6%, 심야 매출(21시~07시) 53.1%증가 	
------------	---	--

⇒ 온라인·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의 매출증가 등 생업현장에 디지털 전환 가능성을 확인

② (소상공인 위기극복 대응)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신속 지원 및 긴급금융 공급, 재기지원체계 구축

구 분	주요 추진내용
새희망자금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3.3조원) 신설·지급
적극적금융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낮은 이자로 대출하는 "1천만원 긴급대출" 도입('20)
재기지원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0.1조원), 소상공인의 업종전환·재창업 등 재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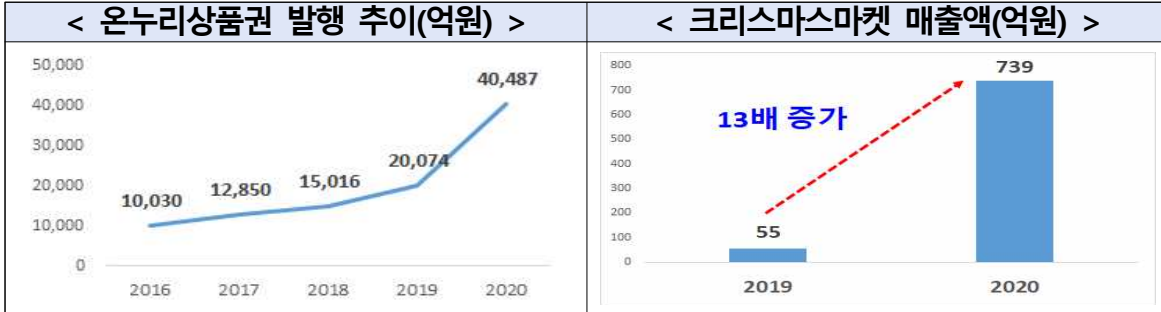
⇒ 범부처 디지털협업을 통해 새희망자금 개시 3일만에 184만명을 지원하고, 긴급대출 절차 대폭 간소화(대출 소요 4주 → 3일) 등 적극행정 구현

- ※ (새희망자금 관련 대통령님 SNS메시지, '20.10.7) "국세청, 건강보험공단의 공공 데이터 활용을 통한 대상자 선별에 대해 전례없이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력"

③ (소비촉진 통한 자생력 제고) 4조원까지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동행세일'(20.6월), '크리스마스마켓'(19~20.12월) 등 추진

* 기존의 오프라인 판촉 행사에서 벗어나, 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온라인 판로 접목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21.2 시행)하고,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추진



4 자성한기업 등 대·중소기업 간 새로운 상생협력의 길 마련

① (자성한 기업)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발굴(~'20. 25개) → 중소·벤처·소상공인에 대한 투자·금융·판로·디지털화 등 122조원 지원 약속

* 다보스포럼(WEF, '20.1)에서도 '자성한 기업' 정책을 포용적인 성장모델로 평가

①네이버-소상공인연합회('19.5)	②포스코-벤처캐피탈협회('19.5)	③신한금융그룹-벤처협회('19.6)
④국민은행-외식업중앙회('19.8)	⑤우리은행-여성경제인협회('19.8)	⑥소프트뱅크벤처스-KVIC('19.9)
⑦삼성전자-중기중앙회('19.10)	⑧하나은행-연세대·이노비즈('19.11)	⑨철도시설공단-여성벤처협회('19.11)
⑩현대기아차-자동차협동조합('19.12)	⑪한국항공우주산업(KAI)-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20.2)	
⑫ARM-서울대-벤처기업협회('20.4)	⑬스타벅스-프리즘-AC협회('20.5)	⑭SKC-코스포('20.5)
⑮LG상사-무역협회('20.7)	⑯기업은행-중기중앙회('20.8)	⑰KT-이노비즈협회('20.9)
⑱SG서울보증-메인비즈협회('20.9)	⑲프레시자-백년가게협의회('20.10)	⑳수자원공사-VC협회AC협회('20.11)
㉑비자-쇼피파이-온라인쇼핑협회('20.11)	㉒LH-중소기업중앙회('20.11)	㉓CJ ENM - 대중소재단('20.12)
㉔컬리-전국상인연합회AC협회('20.12)	㉕이마트-백년가게협의회('20.12)	

② (상생협력 기반 확충) 불공정거래 사건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상생조정위원회' 구성·운영('19.6 출범, 20건 조정 완료)

사례

· 상생조정위원회의 납품대금 조정사례 : 수위탁기업 간 납품단가 조정 관련 분쟁을 조정신청 후 43일만에 6% 인상 합의(영업이익 연 2억원 증가)

- 상생결제 500조원 돌파('15~'20 누적),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19.1) 등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 기업의 85.7%가 납품대금 인상 합의 도달('20.4)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18.12월 시행) 및 사업조정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

* 생계형 적합업종('20.12, 누계) : 신청 26건 → 지정 10건, 자율협약 10건

* '20년 사업조정 종결 26건 중 상생협약 15건(58%), 조정권고 3건, 반려 8건

5 새로운 혁신생태계 - 규제자유특구, 소부장·BIG3 육성 박차

① (규제자유특구) 그간 총 4차례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132개 규제특례를 허용 → 일자리, 투자유치, 기업이전 등 가시적 성과 창출

구분	주요 성과
투자유치	경북(배터리리사이클링),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제어) 등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6,757억원 기록
일자리창출	최초 특구 지정('19년) 이후, 실증을 추진중인 특구 내 혁신기업이 1년간 1,255개(중소기업이 74%)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업이전	미국 자율차 전문기업(→세종), 대용량 배터리팩 생산 기업(→경북) 등 유망기업의 특구로 이전(신규 162개사)

⇒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모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구축



* 실증이 진전됨에 따라 핵심부품 국산화, 특허 출원 등으로 매출 및 수출기회 확대 등

②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선도하는 '소부장 강소기업 100', '소부장 스타트업 100', '소부장 상생모델' 선정·집중 지원

⇒ 소부장 강소기업·스타트업 선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선정 기업들이 창출한 성과를 사회에 환원키로 공동 선언*

* 함께성장 마중물 선언식('20.6월), 소부장 엔젤투자펀드 조성 MOU('20.11월) 등

③ (BIG3) 셀트리온 등 국내 혁신기업 및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협업,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유망기업 250' 육성

사 례	· (엔비디아, 글로벌 반도체 기업)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상용화·글로벌화 등을 지원하는 'N&UP' 프로그램 도입	
	· (셀트리온, 국내 혁신 바이오기업) 인천 송도 스타트업파크 신설에 적극 참여 → 국내 바이오 특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	

◇ (예산·조직) 스마트공장·상점·서비스 등 중소·벤처·스타트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체계 개편 및 지속 확대

* 예산(조원, 본예산 기준) : ('17) 8.5 → ('18) 8.9 → ('19) 10.3 → ('20) 13.4 → ('21) 16.8

- 비대면경제과('20.5) 등 디지털경제와 혁신성장을 전담하는 조직 신설

* '규제자유특구기획단'('19.5), '미래산업전략팀'('19.7),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20.1) 등

◇ (향후 개선사항)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을 회복하는데 주력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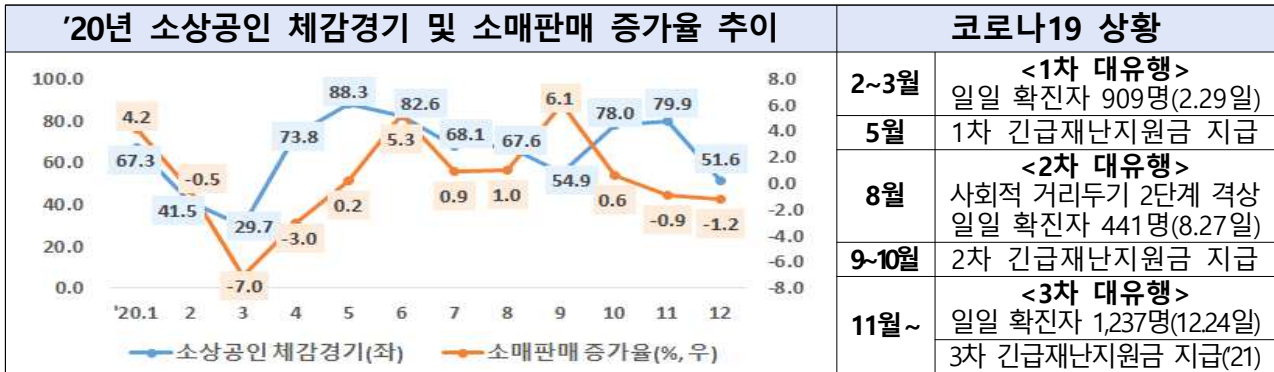
- 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디지털·비대면·그린 등 선도형경제와 전통중소기업의 혁신으로 성과창출 본격화 필요

II.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대·내외 업무추진 여건

① 중소·벤처·소상공인 동향 : 개선 요인과 불안 요인이 상존

① (소상공인) '21년 재난지원금 지원, 백신 접종 본격화 등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단기간 내 회복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



② (창업·벤처) '20년 비대면·디지털 등 유망 분야 중심으로 신규창업과 벤처투자가 이어졌으며, '21년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전망

* 창업기업 증가율(전년비, '20년) : (정보통신업) 21.2%, (전문·과학·기술) 17.2%

** 벤처투자(전년비, '20.1~9월) : 전체 $\Delta 8.7\%$ \leftrightarrow 비대면 분야 $\Delta 1.0\%$

③ (중소기업) '21년 세계 교역의 증가('20^e $\Delta 9.2\%$ \rightarrow '21^e 7.2%) 등으로 수출과 생산 회복이 기대되나 불안요인 상존

* 전체 수출증가율 / 중소기업 수출증가율(%) : ('19) $\Delta 10.4 / \Delta 4.1 \rightarrow$ ('20.1/4) $\Delta 1.9 / 1.7 \rightarrow$ (2/4) $\Delta 20.3 / \Delta 13.7 \rightarrow$ (3/4) $\Delta 3.4 / 3.6 \rightarrow$ (4/4) $4.2 / 7.9$

** 전체제조업 생산증가율 /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 증가율(%) : ('19) $0.1 / \Delta 2.9 \rightarrow$ ('20.1/4) $5.5 / \Delta 1.2 \rightarrow$ (2/4) $\Delta 5.2 / \Delta 10.3 \rightarrow$ (3/4) $1.1 / \Delta 2.6 \rightarrow$ (4/4) $0.6 / \Delta 4.5$

② 세계 주요국 동향 : 디지털경제와 그린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전망

① (디지털경제) 디지털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 전략 마련, 국가 발전 계획의 핵심과제로 디지털화 제시 등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② (그린경제) 친환경에너지 등 친환경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 하고, 탄소중립 목표설정 등 그린경제를 통한 혁신 준비

국 가	주요 내용
	· 조 바이든 당선인은 친환경에너지 발전 등 친환경 인프라에 4년간 총 2조불 투자와 취임 즉시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등 약속
	· 2050 탄소중립 목표로 '30년까지 최소 1조 유로를 투자하는 유럽 그린딜 발표('19.12) /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럽 디지털 전략 발표(20.2)

2. 업무 추진방향

- ◇ (문재인 정부) 국력을 결집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 중립' 전략으로 디지털·그린경제 등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추진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 문재인 정부로 이어오며, 우리나라를 디지털강국 등 선도국가로 만드는 기틀을 마련
 - * (김대중 정부) 초고속 인터넷망의 전국화 / (노무현 정부) 전자정부·ICT강국 추진
 - ◇ ('21년 중기부 역할)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디지털화,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선도형경제 주역화, 전통중소기업의 혁신 등 추진
- ⇒ 중소·벤처·소상공인 및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

①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 본격화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악화에 적극·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원체계 확충 →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 회복 추진
- 스마트상점·슈퍼·공방 및 디지털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등을 통해 자생력 제고

② 중소·벤처·스타트업을 디지털·그린 등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

- 선도형경제를 주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추진
- 플랫폼경제의 문제를 보완하는 프로토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그린경제를 선도하는 벤처·스타트업 육성

* 프로토콜(Protocol) 경제 :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탈중앙화·탈독점화·분권화를 이루고 합의된 규칙 하에 참여자 모두가 투명성을 확보하는 "더불어 잘사는 공정경제시스템"

③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맞춤형 지원 강화

-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기업 혁신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굴뚝 제조공장의 공정혁신·사업전환 등 전통중소기업의 제조혁신 촉진

비전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회복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선도형경제

5대 핵심 정책방향

1 소상공인 경영회복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을
회복시키는 지원체계 마련

2 선도형경제 주역화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경제의 주역으로 육성

3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

디지털화, 저탄소화, 지역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기반 구축

4 새로운 상생정신 확산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경제 확산

5 내부혁신

'현장·소통 중심' 적극 행정 구현

[1]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 회복 추진

개 요

- 버팀목자금, 긴급대출 등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손실보상제 마련 적극 검토
- 폐업·재기 소상공인 지원 등 안전망을 구축하고,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스마트화, 지역상권법 제정 등 추진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1]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안정화시스템 확충

- 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소상공인의 매출급감 등 시급한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직접지원금 4.1조원 신속 지급 **협업**

* 새희망자금 집행 경험을 토대로 신속지급체계 구축 → 설 이전 지원대상의 90% 이상 지급(목표)

구분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	합계
지원금액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3백만원
재정소요	0.7조원	1.6조원	1.8조원	4.1조원
대상 수	24만명	81만명	175만명	280만명

- ② (임대료 부담 경감) 임대료 목적 긴급융자 4.0조원* 공급, 착한임대인 세제 확대(50→70%),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협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1.0조원 + 신보 3조원 특례보증(5년간 보증료 0.3~0.9%p 경감)

** (현행) 부동산업은 지원대상 제외 → (개선) 착한임대인은 한시적으로 포함

- ③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지원체계 시스템화 **협업**

- (1천만원 긴급대출 도입) 대규모 재난 등 발생 시 경영안정자금 (2.4조원)을 활용, 1천만원 긴급대출 프로그램 가동
- (비대면 대출 시스템) Info-Box* 도입,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신청 창구 구축으로 대출소요일을 기존 20일 → 3일로 대폭 단축(21.4월)
- * 수요자 동의 후 신용등급 등 대출 관련 주요 정보를 일괄 취합하는 정보화 시스템
- (법적 기반 마련)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소진기금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21.상)

②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가속화를 위한 피해 지원 적극 검토** 협업

-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적극 검토

*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부의 불가피한 방역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피해지원 법제화 추진('21.상)

③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 지원**

- ① (폐업·재기지원)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로 이어지도록 민간·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지원 강화 뉴딜

-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재기단계 소상공인에 세무·법률 자문 및 취업·재창업 사업화 연계 지원 강화

* (세무법률 자문) '20년 3천건 → '21년 4천건 / (재창업 사업화) '21년 1,200건 신규 지원

- (민간협업 재기지원) 재기지원 교육 이수자 등에 대해 민간·공공기관과 연계한 사업 노하우 전수, 취업·재창업 기회 제공

* LH와 협업하여 소상공인이 재창업시 희망상가에 1년간 무보증금 입점 지원 등

사 례

·민간 협업 프로그램 시범 운영 ('20.하)

- (개요) 40대 이상 재기 소상공인에 커피 트렌드, 위생, 손익구조 관리, 매장 운영 등 민간기업 노하우 전수
- ('20년 성과) 99명 선정, 28명 바리스타 채용



-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고용부)과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중기부)이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홍보 강화 협업

* 1인 자영업자 보험료의 30~50%를 최대 3년간 지원 ('21. 1.3만명 목표)

④ **소상공인의 일터(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상권회복 프로젝트 추진**

- ① (소상공인·전통시장 스마트화)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디지털기술 등 스마트기술을 도입, 경영·서비스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뉴딜

- (스마트상점)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상점을 본격 확산 ('21. 2만개), 최신 스마트기술 전시 등 모델샵도 추가 구축('21. 1곳)

< 참고 : 스마트상점 성공 사례 >



치킨 튀김용 로봇 (치킨점)



초콜릿 3D프린터 (카페)



스마트 미러 (미용실)

- (스마트슈퍼) '20년 성공적 시범도입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사후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체계* 확립 및 확산(21. 800개)

* (1단계) 상권분석 및 점포 진단 → (2단계) 무인슈퍼 기술·장비 도입 → (3단계) 스마트기술 활용기법 교육 → (4단계) 성과관리 및 점포 경영지도 등

- (스마트공방) 수작업 중심 소공방에 자동화 설비, 데이터 수집·연계 등 스마트기술을 보급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21. 600개)

- (디지털 전통시장) 대면 판매 중심인 전통시장에 온라인 배송 서비스 도입, 무선결제, VR 지도 구축 등 지원(21. 100곳) [뉴딜]

* 전통시장 디지털화를 지원·관리하는 전문가 '디지털 매니저'를 매칭하고,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택배상품 발굴 등 마케팅 연계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QR결제 등 가능한 무선단말기 보급(21. 6만개)

-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특화거리, 온라인 판매, 복합 체험판매 라운지를 패키지로 지원(21년 1곳, '22년 2곳 선정)

- (특화거리·온라인판로) 개별점포(업종별) 스마트 기술 도입, 지능형 CCTV 및 사이니지 설치, 상권 특성별 온라인 판로 지원 등
- (플래그십 스토어) 문화, 체험, 제품판매 등이 결합된 복합 매장 구축
- (기존 상권르네상스 운영 혁신) 선정상권에 전문 컨설팅(콘텐츠·디지털 등),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

- (빅데이터 상권플랫폼) 상권정보시스템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 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21.8) 및 민관협의체* 발족(21.11) [뉴딜]

* 유동인구, 소비트렌드 등 소상공인 경영에 밀접한 데이터의 확보 등 지원

- (디지털 간편결제) 온라인쇼핑몰·배달앱 등에 간편결제를 도입·확산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가맹점을 120만개**로 확대

* 시장경영바우처·특성화시장·스마트상점 선정시가점, 정책자금 금리우대 등

**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점 : (20.12) 73 → (21) 120 → (22) 160 → (23) 200만개

- 해외 관광객이 자국 결제앱을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협업체계 마련(21.상~)

② (내수 촉진 기반 확충)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2.5→3조원, 본예산 기준), 「지역상권법」 제정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

③ (소비촉진)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가능성을 입증한 동행세일, 크리스마스마켓에 문화를 접목하여 대한민국 대표 소비촉제로 확장 **협업**

*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계획 수립

④ (백년가게) 지역문화 연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시설개선·판로지원 전용사업 신설(59억원) 및 백년가게협의회 구성 등 추진

* 지역의 문화·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백년가게의 스토리에 대해 온·오프라인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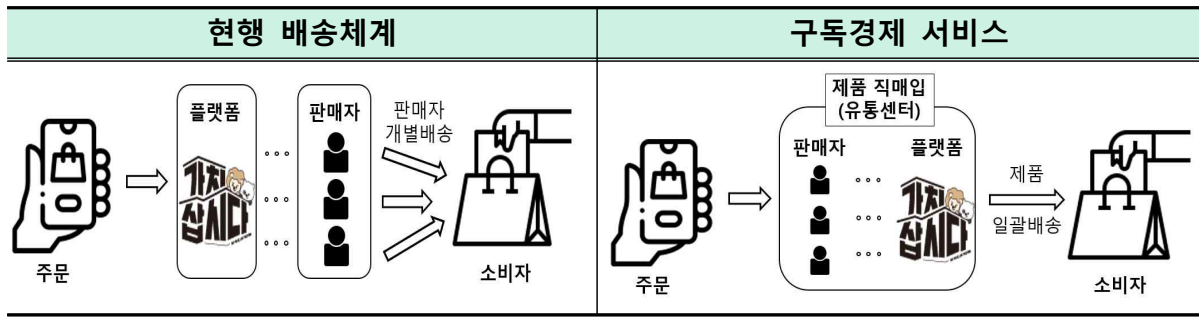
⑤ (구독경제 접목) 자상한 기업, 라이브 커머스 등 플랫폼을 활용, 유망 소상공인 상품을 소비자가 미리 결제 후 정기 배송하는 (가칭) '소상공인 구독경제 생태계 구축방안' 마련('21.3월)

- 반찬·간식 정기배송 등 소상공인 구독경제 확산을 위해 '가치샵시다' 플랫폼 內 구독경제관 개설 등 시범운영 (1~2개 지역, '21.상)

< 2021년도 소상공인 구독경제 시범운영 추진방향(안) >

· 다양한 묶음 상품(꾸러미 채소 등)·옵션 구성 및 일괄 배송이 용이한 전통시장, 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정기배송 체계 구축

* (1) 전통시장 : 플랫폼과 연계한 근거리 배달서비스 활용 → 구독경제 선제 적용
(2) 백년가게 등 : 자상한 기업 협약을 체결한 프레시지(fresh easy) 등과 협업 추진



⑥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라이브커머스 등 소상공인 온라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플랫폼 협업 등 판로 다양화 **뉴딜**

구분	주요내용
가치샵시다	· '가치 Day' 방송 확대('20. 130→'21. 500회), 소비트렌드 분석 및 판매 컨설팅 제공 등 기능 고도화
민간 플랫폼 협업	·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등 온라인몰 진출 지원을 대폭 확대('20. 200회 → '21. 400회), 상품개선 컨설팅 등 연계

기대효과

- 소상공인이 긴급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기지원·고용보험 등의 안전망 강화
- '25년까지 스마트상점 10만개, 디지털전통시장 500개, 스마트공방 1만개 구축 등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디지털혁신 적극 확산

[2]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

개요

- 포스트코로나 시대, 창업붐, 투자붐, 수출붐 등 3대 붐(Boom)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의 디지털·비대면·그린 등 선도형경제의 주역화 추진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1] 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 등 선도형경제 창업붐 활성화

- ① (디지털·비대면 경제)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벤처 4대강국 구현 **뉴딜** **협업**

- (K-비대면) 비대면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25년까지 1,000개) → 성장 및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비대면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기반 확충

구분	주요내용
비대면 혁신 스타트업 발굴·지원	· 부처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바이오 헬스케어, 물류·유통 등 8대 비대면 분야별 스타트업 발굴 및 연계지원('21. 200개)
성장 지원 + 국내 수요 창출	· 비대면·디지털 기술보증 5.5조원 등 성장자금 9조원 공급(~'25년) 비대면서비스바우처 지원, 비대면 분야 공공구매 활성화 등
비대면 혁신벤처 생태계 인프라	·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정의와 육성체계, 규제혁신 등을 규정하는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21.1분기)

- (K-유니콘 프로젝트) 아기유니콘* → 예비유니콘 →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스케일업 생태계 조성**('21.1~)

* 아기유니콘 '21년 지원 규모 확대(40개→60개사), R&D·정책자금·보증·투자 연계지원
 ** 복수의결권 도입, 스케일업 펀드 조성, 투자-보증 레버리지 프로그램 운영 등

- ② (그린 경제)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 등을 통해 그린경제를 주도하는 벤처·스타트업 육성 **뉴딜** **협업**

- (그린뉴딜 유망기업)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를 선정(~'22)하여 R&D, 사업화자금 등 지원 →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 **뉴딜** **탄소** **협업**

* 그린 분야 예비·초기 창업자를 위한 전용트랙 신설·운영('21~) → '25년까지 그린 스타트업 1,000개사 육성('21. 200개)

- (그린 스타트업타운) 지역 혁신자원 및 정주여건을 결합한 지역 친환경 거점을 확대 조성하고, 그린 벤처기업 등 집중 육성 **뉴딜** **탄소**

* '21년 1개소 조성 완료(천안) 및 1개소 추가 선정(설계) 추진

③ (혁신 창업 인프라 등 확충) BIG3 및 D.N.A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등 인프라 확충

- (BIG3) 성장 잠재력을 갖춘 BIG3 분야 스타트업 발굴 → BIG3 펀드(1,500억원) 등을 통해 집중 투자하고 맞춤형 지원* 강화
 - * (예시 : 바이오) 의료현장 애로수요와 중소·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방역물품 기술개발 및 조기 상용화 지원 ('21.1분기~, 신규 89억원)
- (D.N.A) 인공지능 챔피언십 개최 → 우수팀에 창업사업화(1억원), 기술개발(최대 4억원), 기술보증(최대 20억원) 등 연계 지원
- (제조창업)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21.상)

④ (청년창업 활성화 등 기반 확충)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등 구축 협업

구 분	주요 내용
청년 창업	· 창업자금 + 지원프로그램 + 창업인프라 등 분야별 청년창업 활성화 추진체계 마련 * 청년창업사관학교('21. 1,000명), 청년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
청년 일자리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계약학과 확대(5개교 추가)로 자기계발 지원

② 적극적 마중물 공급 등을 통한 벤처투자분 촉진

① (스마트대한민국펀드) '20년 1.3조원에 이어 '21년 1조원을 추가 조성 하여,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기업에 집중 투자('25년까지 총 6조원 조성 목표)

- ('21년 조성방향) 비대면 펀드, 바이오 펀드, 그린뉴딜 펀드, 멘토기업 매칭 분야 등을 중심으로 약 1조원 규모로 조성 추진
- (펀드 활성화 등)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분야별 '스마트대한민국 파트너스 데이' 개최 → IR 피칭, 투자유치 전략 컨설팅 등 연계 지원

② (벤처투자 환경 고도화) 실리콘밸리식 금융 도입을 추진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 추진

- (실리콘밸리식 금융) 기존의 제도 내 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Venture Debt) 제도 등 복합금융 신설('21.하)
 - * 융자기관은 대출대상 기업의 신주인수권(통상 융자액의 1~2%)을 보유하고, 기업이 후속투자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리자금을 공급
-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 등) 벤처투자 표준 계약서 마련·보급 등 피투자기업 보호를 위해 감독 기능을 강화('21.상)

③ '브랜드K' 등을 통한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수출분 도모

① (브랜드K)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K'의 인지도 제고, 판로 지원 등을 통해 국내·외 입지(브랜드 파워) 강화 협업

- (인지도 제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브랜드K 및 제품을 체험, 홍보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구축하여 홍보 지원('21. 국내1, 해외1)



* 테마별 콘셉트관, 체험관, 온라인 홍보관 등 결합

- (판로 지원) 브랜드K 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내판로 종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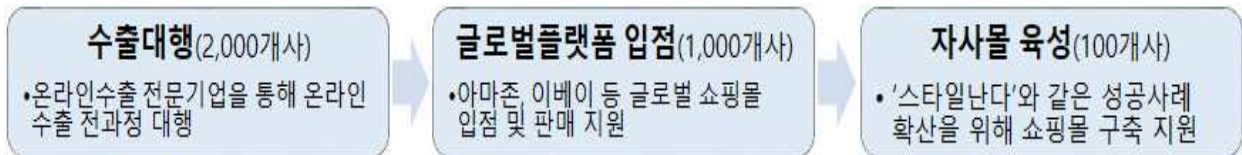
* (해외)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여 확대, 해외 온라인몰 내 한국관 추가 구축 및 입점 지원
(국내) 온라인몰, 홈쇼핑을 통한 지원 확대, 동행세일 등 대규모 판촉 시 홍보관 구축 등

- (맞춤형 전략수립 지원) 빅데이터 기반의 신남방·신북방 국가 시장현황 조사 및 브랜드K 개별제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② (코로나19 대응) K-방역제품 등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온라인 수출을 촉진하고 해상물류 등 수출애로 해소 지원 **협업**

- (비대면·온라인) 기업의 수출역량 단계별로 ①수출대행, ②글로벌 플랫폼 입점, ③자사몰 구축·육성 등 수출기업화 지원

< 수출역량 단계별 수출기업화 지원내용(안) >



- (수출애로 해소) 국적해운선사(HMM) 운항 선박에 중소기업 수출 물량을 우선 배정('20.11월~)하고, 운임 보전 지원('21년, 2,000개사)

③ (해외거점 등 연계)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거점 및 ODA(국제개발협력) 활용 기반 조성

- (K-스타트업 센터) KSC파리 신규 개소('21)를 통해 서유럽 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화업종 선정* 등 전략성 강화

* (싱가포르) 핀테크, 스마트 시티 (스톡홀름) 인공지능, 친환경, (파리) 문화콘텐츠 등

- (ODA) 몽골 울란바토르 스타트업 허브 조성('21~'23) 등 추진

기대효과

- '25년까지 글로벌 비대면 혁신벤처 100개, 비대면 예비유니콘 700개 등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기업 육성
- '22년까지 브랜드K 제품 400개 선정 등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촉진

(3) 디지털화, 저탄소화, 지역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기반 구축

개요

- 스마트제조혁신, 저탄소공정혁신, 신사업전환혁신 등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중소기업의 역동성과 혁신성 제고 추진
- 규제자유특구, 지역주력산업 등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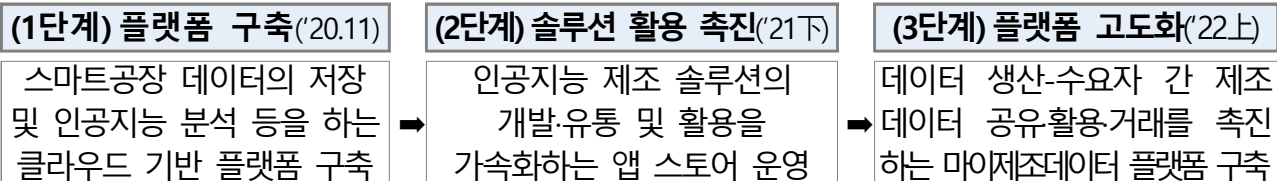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중소제조업 디지털화 등 스마트제조혁신

① (디지털화 촉진 인프라) 인공지능 제조플랫폼과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제조혁신법 제정 등 기반 확충 **뉴딜**

- (인공지능 제조플랫폼) 마이제조데이터 체계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을 단계별로 차질없이 구축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중소제조기업이 제조데이터를 활용, 설비·공정상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활용 지원



- (디지털 클러스터) 중소기업 집적지를 중심으로 동종업종, 가치사슬 기업간 협력형 모델을 창출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100개 구축(~'25)

* 개별 스마트공장을 상호 연결하고, 다양한 공동 협업활동을 지원하는 협력 플랫폼 (공동물류·판로, 시제품 분업생산 등) 패키지 지원

- (제도적 기반 확충)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혁신 지원과 마이제조데이터의 체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제조혁신법 제정 추진 ('21.상)

② (스마트공장 선도모델) 중소기업 제조혁신의 선도모델로서 5G+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1,000개, K-스마트등대공장 100개 구축(~'25) **뉴딜**

* K-스마트등대공장 :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업종대표 공장을 선정, 5G+인공지능 융합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선도형 공장 구축 ('21. 10개)

③ 스마트제조 혁신생태계 조성 및 선순환 구조 확충

- (스마트공장 1번가) 스마트공장 구축단계부터 사후관리, 고도화 등 전반을 종합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21.3월)
- (제조혁신 R&D) 첨단제조, 유연생산 등 제조혁신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기획(22~26년, 정부 3,288억원) 협업

② **글썩 제조공장의 저탄소 공정혁신 및 신사업전환혁신 기반 확충**

① (저탄소 공정혁신 가속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도 마련

- (탈탄소경영 특별법) 중소기업의 탈탄소경영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린뉴딜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특별법 마련 추진(21.1월~)
- (금융지원) 그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전용자금 및 총액목표 마련*, 탄소가치평가모델 고도화(21.1월~) 탄소

* (전용자금) Net-Zero유망기업지원 200억원, (총액목표) 0.6조원

- (인식개선)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친환경 분야 실무과정 운영 및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공고 등에서 친환경 분야 우선 지원(21.2월~) 탄소

② (사업전환·재도약) 제2의 창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의 **新사업** 개척을 지원하고 부실 단계 진입 전에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탄소

- 신생 사업분야 진출(동일 산업분류 내 진출 포함) 및 생산성 혁신을 사업전환 대상으로 폭 넓게 인정(21.하, 사업전환 관련 법령 개정)
- 기업 신청, 금융기관 선별 등을 통해 부실 단계 전 기업(채무 100억원 미만, B등급 위주)에 대한 유동성 공급·컨설팅 등 경영안정화 지원

③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 신기술·신사업 창출 촉진**

① (특구제도 안착화) 1·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기간 종료*에 따라 성과 창출을 위해 법령정비, 임시허가 전환 등 후속조치 추진

* 1·2차 특구 39개 사업의 실증특례가 '21년 하반기(8월, 12월)에 각각 종료

구분	주요내용
법령정비	· 안전성 검증 → 법령정비 절차 착수 지원 → 법령정비 * 즉시 추진가능한 규칙·고시 개정 등은 신속 추진(관계부처)
임시허가 전환	· 법령정비 안된 경우 입법시까지 사업 중단이 없도록 임시허가 전환 · 임시허가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경우* 실증특례 기간 연장(6개월~2년) * 타법령에서 명시적 금지, 임시허가 실익이 없는 경우
특구기간 추가	· 실증에 추가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연장, 재정 추가지원 여부 등을 검토

② (활성화)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의 사업화 지원 강화 **뉴딜**

- (특구기업 사업화) 실증종료 후 특구·창업기업의 수요에 맞춰 R&D·자금·판로 등 정책 수단 패키지 지원

③ (신규지정) 디지털·그린 등 국가정책과 연계(Top-down)한 방식을 병행하여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21년 2회) **뉴딜**

< 규제자유특구 사업화 지원 패키지(안) >



-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저탄소·친환경 특구를 '25년까지 20개로 확대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 등 선도적 역할 수행 **탄소**

* 현재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강원 액화수소 등 11개 기 지정

이산화탄소 자원화 (울산)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탄산칼슘을 생성하고 콘크리트, 고무 등 건설·화학소재로 제품화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경북)	전기차 운행 거리에 따른 폐배터리 성능 평가,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등을 위한 실증 추진	

④ 지역주력산업·지역선도기업 육성 등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화

① (지역 산업·기업)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주력산업 전면개편*에 따라 선도기업 육성, 대표 프로젝트 추진(21.1분기) **뉴딜**

*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20.11.26일, 경제중대본) → 디지털(20개), 그린(19개), 고부가가치화(9개) 산업으로 개편·확정(20.12.29일)

-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시·도 주도로 지역주력산업 분야 유망기업 100개사 선정('21~'22) → R&D, 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
- (지역 대표 프로젝트)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해당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대표 프로젝트 발굴·추진('21.2월~)

② (지역 벤처·창업) 지역의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 공급 등 지역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21.1분기) **뉴딜** **협업**

- (지역뉴딜 벤처펀드) 지역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지역소재 공공기관 등이 앵커출자자로 참여하는 권역별 펀드 조성('21.1월~)
- (지역 엔젤투자허브) 엔젤투자 확대(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위해 창경센터 등과 협업하여 '지역 엔젤투자허브' 구축·운영('21년 2개)
- (창업 생태계)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특성에 아이디어를 접목한 지역 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육성·발전 전략 마련('21.3월)

5 현장수요와 뉴노멀에 대응한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

① (현장수요) 내수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B2B, B2G 지원 강화

구분	주요 내용
B2B	· 기업간 거래 연결을 위해 B2B 매칭플랫폼을 설치하고 가치샵시다 등 공적 온라인플랫폼에 B2B 전용물 운영('21.상)
B2G	· 데이터 기반 우수제품 발굴 등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 촉진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동반성장물 연계('21년 계획수립 → '22.上 시스템 연계)

② (뉴노멀 진출)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라 온라인몰 통합관리 지원을 고도화하고, 구독경제 적합 상품에 대한 정기배송 지원 등('21.상)

③ (공공구매제도 혁신) 비대면·디지털 등 유망분야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개편('21.2분기) 등 공공구매제도 혁신

-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21.1월 시행)

기대효과

-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제조혁신 구현
- '25년까지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20개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혁신 가속화

[4] '연대와 협력' 으로 상생경제 확산

개요

-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 등 상생협력 기반을 확충하고, 자발적 상생협력기업 발굴 및 사업영역 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 경제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상생경제를 확산하고, 노동정책의 중소기업 현장안착 적극 지원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1]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 등 상생협력 기반 확충 협업

- ①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 자발적인 이익공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적 모델을 발굴·확산 추진
- ② (사업영역 보호) 대·중소기업간 자율협의 유도 및 사업영역 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 추진

- (상생협약 유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나 강제조정 권고에 앞서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을 우선 추진하여 갈등 최소화
 - * (실태조사) 자율협약 이행 여부 실태점검을 통해 상생협약의 이행력을 확보
- (제도적 보완)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 제고
 - * (보호공백 최소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절차 진행 중(지정前)에도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권고 등 보완방안 마련

- ③ (상생협력 기반 확충) 상생협력기금 신규 1조원 조성('21~'25년), 동반성장 평가체계 개선 등 상생협력 기반 강화 협업

2] 혁신 분야 자상한기업 발굴 및 소재·부품·장비 상생협력 등 강화 협업

- ① (자상한기업) 비대면·디지털 등 한국판뉴딜 및 탄소중립 분야와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발굴 → '자상한 기업' 협약 체결
 - * 자상한 기업 발굴 현황 및 목표(누적) : ('19) 10개 → ('20) 25개 → ('21목표) 35개
- (성과확산) 협약 기업·단체간 입체적 교류협력 강화, 협약 이행사항 점검, 성과 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를 통해 성과 확산

② (소부장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간 분업적 상생모델 확대를 위해 R&D 지원규모 확대 등을 추진하고, 친환경 분야 소부장 육성*

*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통해 친환경 관련 소부장 국산화 상생모델 발굴 및 지원(21.상)

- (소부장 창업·성장) 소부장 '스타트업 → 강소기업 → 으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마련하고 전용사업 신설 등 지원 강화

* 강소기업 전용 R&D 신설('21년 125억원), 스타트업100 스케일업 지원 등

③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등을 통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촉진**

○ 대기업 등이 제시하는 문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본격 운영(21~)

* ('20년) 17개 대기업 + 320개 스타트업이 참여하여, 인공지능 등 주요 분야의 혁신적 사업모델 발굴 및 대기업-스타트업 협력체계 조성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확산) 벤처창업 생태계 중심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민간 주도·협력형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시스템”으로 확장을 위한 5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핵심체계 구축(21.상)

< 2021년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 5대 핵심체계(안) >

① (혁신경제) 혁신·도전적 벤처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 강화
② (프로토콜경제) 대스타-해결사 플랫폼을 통한 프로토콜 경제 구현 모델 및 주요 과제 발굴
③ (서민경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 모색
④ (공정·상생경제) 자상한기업 중심으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확산하여 상생협력 촉진
⑤ (조달경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중소벤처기업 공공조달제도에 접목하여 혁신 가속화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의 체계적·지속적 운영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21.상), 모델 다양화 및 상시 문제해결시스템* 구축

* 문제접수시스템 운영 및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 상시 발굴

4 플랫폼과 동행하는 **프로토콜(Protocol)경제로 공정한 혁신생태계 구현**

① 프로토콜 경제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플랫폼노동자·전통산업·공유경제·블록체인 기반기술 등 4대 선도모델 정립(21.1분기)

* 3대 기본원칙 : 정보 분산(탈중앙, 분권형) + 중개비용 최소화 + 합의된 규칙

< 플랫폼노동자와의 상생 모델 >	< 전통산업과의 상생 모델 >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급을 전제로 운송노동자 등 각 노동자와 상생하는 모델	음식점, 숙박업 등 전통산업과 소비자를 최소의 수수료로 연결하는 모델
< 공유경제 활성화 모델 >	< 블록체인 기반기술 관련 모델 >
사람과 사람 간의 시설·물품 공유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모델	블록체인 합의 및 데이터 관리 등과 관련된 신기술을 개발하는 모델

② 벤처·스타트업의 프로토콜 선도모델 사업화 패키지 지원(21.1분기)

- (창업·사업화 지원) 4대 선도모델 관련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사업화 지원 전용 트랙 신설

* 유망 스타트업 선발부터 교육·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등 연계 지원

- (성장 지원) 4대 선도모델 구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기술개발 등을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확충

* (정책자금) 선도모델 구현기업 등에게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전용자금 신설(21.상) (글로벌화) 싱가포르·스톡홀름 스타트업 센터를 블록체인으로 특화하여 운영(21.2분기)

③ 프로토콜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시범추진

- (민간 주도·협력 촉진) '21년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에 프로토콜 분야를 포함하고, 관련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과제 발굴

* 대기업의 문제를 해결한 스타트업을 선발 → 사업화기술개발 등 지원(최대 25억원)

- (데이터 개방 → 프로토콜 창업)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혁신 벤처스타트업에 개방하여 프로토콜 창업 촉진(21.하)

④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경제 등 프로토콜 모델 성공사례 창출 및 확산

- 부산 블록체인 특구 등의 사례를 토대로,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실증 및 참여기업 대상 R&D, 투자 등 연계 지원 검토

*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 화폐, 실물자산과 연동시켜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

⇒ 프로토콜 경제 4대 선도모델 구현을 위한 패키지 지원, 보상체계, 법적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프로토콜경제 발전전략' 마련(21.상)

※ 2021년 경제정책방향 기반영 과제

5 주요 노동이슈 중소기업 현장안착 맞춤형 지원 **협업**

- ① (주52시간제) 관계부처, 중소기업 협·단체 등과 협업하여,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1:1 맞춤형 정책 연계
- ② (안전한 기업현장 조성)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산업재해 예방 교육·컨설팅 강화 등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기대효과

- '연대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상생정신이 민간에 확산되고 경제주체 간 상생협력이 활성화

(5) '현장·소통 중심' 적극행정 구현

개요

- 현장·소통 중심의 성과점검, 국민추천제 활성화 등 '현장·소통 중심'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① (현장·소통 중심의 성과점검) 중소·벤처·소상공인 현장과의 주기적 소통을 통해 지원정책의 성과, 현장 안착여부 등 점검·확인
- ② (국민추천제 활성화) 당사자가 지원사업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과 함께, 일반 국민이 지원대상 추천 병행(적용 사업 : ('20) 10개 → ('21) 15개)
- ③ (캐주얼데이 운영) 현장밀착형 정책 구현과 창의적 업무 수행을 위해 매주 금요일을 「캐주얼데이(Casual Day)」로 지정·운영('21.3월)

* 중기부 직원들이 월 2회 내외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 청취

기대효과

- 「현장의 목소리 → 정책·제도화 → 국민체감」으로 이어지는 중기부의 혁신적인 업무방식 및 조직문화 확산

IV.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① 소상공인의 경영이 회복되고, 스마트상점·전통시장이 나타납니다

-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경영이 회복·안정되고 '21년 스마트상점 2만개 (~'25. 10만개), 디지털전통시장 100개(~'25. 500개) 등 디지털 전환으로,
 - 영업시간 단축 등 삶의 질 향상 및 심야 추가 매출로 수익성 제고
 - * 동네슈퍼 평균 영업시간 : 16시간 25분(개점 07:23~폐점 23:48)
 - * (스마트슈퍼 1호점 "형제슈퍼") 심야에는 무인점포로 전환되며, 일평균 매출 32.6%, 심야 매출(21시~07시) 53.1%증가
- (고객 등 일반국민) 동네슈퍼, 동네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로 온라인을 통한 배달주문과 모바일 결제 등 편리하게 쇼핑

② 글로벌 혁신기업이 나타나고, 대한민국이 세계 벤처4대강국 진입으로 디지털경제를 선도합니다

- (벤처·스타트업) 줌(Zoom) 및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비대면 기반의 혁신기업 육성
 - * 목표(안) : 글로벌 비대면 혁신벤처(~'25. 100개), 비대면 예비유니콘(~'25. 700개) 등
- 유니콘 증가 등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로 '벤처 4대강국' 실현
- (일반국민) 디지털·비대면 혁신 벤처·스타트업에서 일하고, 대한민국 유니콘기업이 만든 글로벌 플랫폼을 사용
 - * '25년까지 혁신벤처·예비유니콘 육성을 통해 약 16만개 일자리 창출
 - ** (참고)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 72.3%가 스타트업으로 이직 의향 있다고 응답('20.10, 잡코리아)

③ 지역에서 새로운 혁신이 만들어지고 전통중소기업이 성장합니다

- (지역 전통중소기업) 지역별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도전적 신기술을 개발하고, 브랜드K를 통한 글로벌화 추진
 - * '21년까지 규제자유특구를 30개 이상 지정 목표('20년 누적, 24개)
 - * 브랜드K : ('20) 133개 제품 → ('21) 213개 제품 → ('22^e) 400개 제품
- '21년 스마트공장 약 2.4만개 보급(누적, ~'22. 3만개) 등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제조혁신 구현
- (일반국민) 지역 전통중소기업이 성장하고 혁신함에 따라, 지역 경제의 활력이 회복되는 것을 체감

별첨 1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국정과제	추진현황	향후계획
<p>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기업간 사업영역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지정 2건*, 자율협약 5건** 등 갈등 최소화 * 국수, 냉면 ** 오프셋인쇄업, 전통떡, 도시락, 막걸리, 화초소매 ○ 중소기업 사업자단체 교섭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비용부담이 큰 수위탁 분쟁 사건을 민·관협의체*를 통해 자율조정 * 상생조정위 : 중기부,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특허청, 민간위원 등 총 17명 ○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공공기관 등 106개사 1,992개 협력이익공유 과제 발굴·추진 * ('19) 56개사, 561과제 → ('20) 106개사, 1,992개 과제 ○ 대·중소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부장 강소기업 100개*, 스타트업 20개 선정하여 R&D 등 종합지원 * 5년간 각각 최대 182억원 지원(정책자금 100억원, 보증 30억원, R&D 20억원 등) - 대중기 상생협의회로 '상생모델' 8건 발굴 ○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발굴·확대*로 122조원 규모** 민간협력 추진 * '19년 10개 → '20년 25개(누적) ** 금융지원(98.7조원), 투자지원(21.4조원), 판로확대(1.6조원), R&D·사업화 등(0.2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업종(8종) 정기 이행점검 -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의 보호공백 보완 - 직권조사 확대 및 납품 대금조정협의제도 성과 확산 추진 -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상생협력법 개정) - 협력이익공유 우수사례 발굴·확산(~'22, 200개사) - 소·부장 스타트업 확대* * ('20) 20개 → ('24) 100개 - 소·부장 상생모델 확대* * ('20) 8개 → ('24) 50개 - '자상한 기업' 지속발굴 * ('21, 누적) 35개 - 성과확산을 위한 이행 점검 및 우수사례 홍보
<p>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 규모 확대 * (발행) ('19)2.0조원(본) → ('20)4.0조원(본+추) ** (판매) ('19.10) 1조 5,024억원 → ('20.10) 3조 3,813억원(전년비 125% 증가) ○ 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진기금 규모 확충* 및 지원 강화 * 3.15조원 → 9.67조원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 온라인 역량강화, 진출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4만개사) 및 종합인프라 구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및 판매 활성화 ('21년 본예산 3.0조원) - 자금애로 해소 및 온라인·디지털화 지원* 강화 * 온라인진출 역량강화, 구독 경제 등 지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점가 육성 및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 르네상스 사업 중점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까지 20곳 선정 - 골목형상점가 정의·지정 절차 등 마련('20.8,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설·지급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87만명, 고용보험료 8,184명 지원(~'20)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를 위한 간편결제 전국 활성화 - 착한선결제 붐 조성, 착한임대인 운동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 르네상스 사업 신규선정(5곳 내외) - 지자체별 골목형상점가 조례 제·개정 추진('21.90곳)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및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간편결제 성장 촉진, 착한선결제 및 임대인 운동 지원 강화
<p>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 관련 제도 정비* 및 코로나 상황 속 펀드결성액** 증가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촉진법 제정('20.8월 시행) ** ('19) 4.24조원 → ('20) 6.57조원(약 55%↑) ○ 혁신창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금(억원) : ('18) 44,150 → ('19) 43,580 → ('20) 62,900 ○ 창업기업의 성장(Scale-up)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시범사업) 100개사 ○ 재도전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대보증 및 부실채권 단계적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대보증 면제(조원): ('19) 15.3 → ('20.11) 23.1 * 부실채권 정리(조원) : ('19) 1.2 → ('20) 1.2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진공·캠코·서울보증) 신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50개사 350억원 용자, 보증발급 70건 - 재창업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창업자금(억원) : ('19) 900 → ('20) 1200 * 재기지원펀드 176개사 2,555억원 투자('20.10) ○ 유니콘 탄생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유니콘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국내 유니콘기업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insights 기준 11개(세계 6위)이나, 국내 투자현황 등을 통해 2개사 추가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자펀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모태펀드 총 1.5조원 출자 3조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추진 -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창업자수 (누적, 만명) : ('20) 4.47 → ('21) 5.6(목표) -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본격 발굴·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200개사 - 재창업 지원기관간 연계 강화 등 성장사다리 구축으로 재창업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20년 누적) 4,282명 → ('22년 누적) 5,500명 -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1조원 조성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1.3조원 조성 ('20~'25, 6조원 조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2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132개 규제특례를 허용 * 특구내에서 1,255개 일자리 창출, 6,757억원 투자유치, 162개 기업 유치 등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 종료에 따른 특구 안착화 추진 * 신속한 법령정비와 임시 허가특례연장 등 추진 - 한국판 뉴딜분야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확대
<p>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 효율화 - '기업 단위 중소기업기본통계' 국가통계 승인으로 정책기반 확보('20.8) ○ 중소기업 R&D 강화 -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 확대를 통해 2조 3,069억원 지원 * R&D 2배 확대 목표(2조 1,670억원) 조기 달성 ○ 공공구매 등 자금조달 여건 개선 - 공공기관(837개) 대상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10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 기록 * 총 구매액인 135조 원의 77.8% (전년 대비 11.7% 증가)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 브랜드K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역량 강화 * 국가대표 중기제품 공동브랜드(브랜드K) 개발·육성(120개 지정, '20년 누적) * 온라인·비대면 방식 지원 확대 및 코로나 19 유망 품목 집중 지원 등 ○ 위기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 수립·추진('20.11월) * 지역주력산업 48개를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해 개편하고 집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부처 사업 성과분석 - 기업통계 등록부(SBR) 품질 개선 - 스마트 서비스 도입 지원 지속(150개사) -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지속 확대 - 공공조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 국가대표 브랜드K 마케팅 지원 강화(62억원) - 비대면·온라인을 통한 수출 촉진 * 온라인 수출 단계별 지원 강화, 물류 지원 고도화 등 - 도심 역세권,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 경영환경 개선 및 그린스마트화 추진(190억원)
<p>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고용제도 운영 -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추가 고용,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20년 신규 105,539명), 청년내일채움공제('20년 신규 132,000명) ○ 우수 기술인력 유인제도 확대 -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14,342명 인력양성 (목표 13,500명 대비 106.2% 달성) * 대·중소기업 상생형 계약학과 신설(3개), 영마이스터 전문학사 개설(총 4개) ○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산 - 성과공유기업 인센티브 확대 및 홍보, 교육, 컨설팅 등 추진 * 성과공유기업('20.11월) : 51,19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청년 취업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명 -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확대(1.4→1.7만명) * 산학협력(14,960명), 계약학과, 중소기업연수원 등(1,940명) - 우수기업 홍보 등 중소기업 성과공유 문화 확산 * 성과공유기업 7만개 달성

“우리의 일상을 바꾼 비대면 혁신 벤처·스타트업”

- 서울 원룸에서 혼자사는 1인 가구 김씨는 얼마전까지만해도 빨래하는 것이 항상 고민이었다. 퇴근 후 늦은 시간 세탁기를 돌리는 것도 고민, 드라이 크리닝을 해야하는 옷들을 제때 세탁 못하는 것도 고민이었다.
- 그러다 며칠 전, 비대면 모바일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스타트업 R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모든 고민이 없어졌다. 이 비대면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스마트폰 터치 몇 번 그리고 문밖에 빨래를 놔두기만 하면, 깨끗하게 세탁된 옷이 다시 집 앞으로 배송되기 때문이다.
- '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아기유니콘200 사업에 선정된 비대면 혁신 스타트업 R사는 '19.3월 서비스 런칭 이후 235억원 투자유치, 1년 6개월만에 1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21년 중소벤처기업부는 「K-비대면 글로벌 혁신 벤처 100 프로젝트」를 통해 비대면 혁신 벤처를 집중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으로 K-방역 세계화에 도전하다”

- A사는 2020년2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발 빠르게 진단키트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해외의 진단키트 주문 폭주에도 불구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와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생산방식으로는 물량을 맞추는 데 턱없이 부족했다.
 - 이에, 긴급히 스마트공장 도입을 추진하였고, 100% 국산 기술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대량생산체제를 확보하여 생산성 증가율 1,233%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올렸으며, 현재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 '19년 대비 10배 이상 매출을 올렸다.
- * (도입효과) 생산성 증가율 1,233%(주당 3천키트→4만키트), 라벨부착시간 감소율 80%(20hr→4hr), 검사시간 감소율 86%, 재고관리 정확도 증가율 25%p, 물류동선 감소율 34%
-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의 질적 고도화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병행하여, '22년까지 누적 3만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다.

“3시간 만에 입금, 속도에 놀라고 또 감동했습니다”

- 경기도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B원장은 수도권 내 다른 학원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받았다. 매출이 2020년 10월에 50%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12월부터는 아예 수입이 없어졌고, 월 110만원씩 나가는 임차료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했다.
-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B원장은 정부가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청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을 한 후 크게 놀랐다. 버팀목자금을 신청한지 불과 3시간 만에 30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 B원장은 “최근 제대로 학원을 운영할 수 없어서 우울했는데, 버팀목자금 덕분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정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배려하여 신속하게 지원한 데 대해 고마운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스마트슈퍼로 바꾸니, 매일 아침 보너스 받는 기분입니다”

- 아내와 함께 둘이서 조그만 동네슈퍼를 운영하는 60대 소상공인 최씨는 스마트슈퍼*로 전환한 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추가로 보너스를 받는 느낌이다.
* (스마트슈퍼) 무인 출입장비, 무인 계산대, 보안시스템 등 스마트기술·장비를 도입하여 낮에는 유인,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 무인점포
- 주인이 퇴근하고 없는 심야시간에는 신용카드로 신분 확인을 거친 손님이 가게로 들어와서 원하는 물건을 고른 후 스스로 계산대에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소비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20~30대 손님들이 많아져 이용고객층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었다.
- 이 동네 슈퍼는 스마트슈퍼로 전환한 뒤 하루 평균 매출이 32.6%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년 시범 운영한 5개 스마트슈퍼의 성과를 바탕으로, ‘21년부터 연간 800개 동네슈퍼의 스마트슈퍼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